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2호 【루게 제25165호】 주제 105 (2016)년 1월 22일 (금요일)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청년강국건설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는 기념비적창조물 청년운동사적관 개관식 진행

위대한 당의 평도민에 주체적청년 운동의 최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뜻깊은 시기에 청년운동사적관이 웅장하게 건설되었다.

청년운동사적관은 조선청년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청년강국건설의 지평을 열어주시며 세상에 처음으로 청년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해결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청년운동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는 위인칭송의 대거기념비이다.

청년운동사적관이 건설됨으로써 절세위인들의 청년운동명도사적이 절대성있게 백두산청년강국의 귀중한 세보가 마련되고 새 세대들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들로 든든히 준비시키는데 이바지할 훌륭한 교양 거점도 갖추어지게 되었다.

우리 당의 청년운동사상과 평도업적을 길이 전하며 청년교양의 거점으로 훌륭히 일떠선 청년운동사적관 개관식이 21일에 진행되었다.

개관식에는 청년문제 나라의 총망상자와 관련된 중대한 전략적인 문제로,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시고 청년운동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으며 우리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명장들로, 시대의 영웅, 창조적 거인들로 키워주신 회색의 친솔위인들에 대한 온 나라 청년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호의의 정이 끓어 넘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개관식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평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개관식장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청년강국건설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평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자!》, 《청년들이여, 백두의 칼바람에 맞서 달려라!》, 《청년들이여, 백두의 폭풍에 맞서 달려라!》, 《청년들은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배대, 척후대, 익측부대로 든든히 준비하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김기남동지, 최룡해동지, 김용진 내각부총리, 리일한 당중앙위원회 부장, 김수길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전룡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청년동맹, 성, 중앙기관, 시안의 여러 단위 일군들, 청년학생들, 건설에 참가한 속도전전력대원들, 8, 28



청년동맹대 지휘관, 대원들이 개관식에 참가하였다.

개관식에 앞서 청년운동사적관 총서쪽에 정중히 모신 청소년들에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탑상에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전국의 청소년들의 명의를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각 도청년동맹위원회들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명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씨가 적여져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선청년운동의 개척자이시며 탁월한 평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끝없는 경모심을 일고 절세위인들을 우러러 삼가 인사하셨습니다.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정일 장군의 노래》주악으로 개관식은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룡해 동지가 개관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청년군인이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2016년의 장엄한 서막을 첫 주시조선로동당의 장대한 폭음으로 열어젖혀 크나큰 환희와 기쁨을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청년운동사적관 개관식을 진행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조선청년운동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시작되고 장성강화되어온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청년운동입니다.》

연설자는 일찌기 청년사업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시고 청년운동의 일대 전성기를 수놓아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정력적인 평도와 하늘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주체혁명의 명맥을 줄기채 이어가는 계승자들의 대우대가 지라나게 되었으며 이 땅우에는 청년중시의 대경로가 마련되고 당의 위업에 끝없이 총진군하는 청년들의 영광찬란한 력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청년들이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이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들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사업관선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최우선적으로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산악같이 펼쳐나신 청년들

대원들은 백두대지에서 창조된 신군시대의 청년동맹정신으로 사적관건설을 짧은 기간에 빛나게 결속하였으며 여러 단위의 창작가, 기술공들도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사적관의 내부전시를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완성하였다.

절세위인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펼쳐나신 건설자들과 지린자들, 전국의 청년동맹일군들과 청소년학생들,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에 떠받들려 청년운동사적관을 백두산청년강국의 기념비적창조물로 거인히 솟아오르게 되었다.

참으로 주체적청년운동의 최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뜻깊은 시기에 사업관선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최우선적으로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산악같이 펼쳐나신 청년들

연설자는 모두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평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림으로써 당이 안겨준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명장, 청년강국의 주인으로서의 영예를 남김없이 펼쳐나갈때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위하여는...》라는 구호판들이 개관식장에 세워져있었다.

개관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청년운동사적관을 돌아보았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청년운동명도사와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는 청년운동사적관은 위대한 당을 따라 영원히 총진군의 한걸음 걸이 높고 당과 사상도 숭고도 발전속도도 같이하여 전진하는 세멘트 생산성으로 당의 대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우리 순천화력발전소 로동자들은 《나는 천리마, 만리마를 뺐는가?》라는 스키의 물음, 함성, 투쟁을 당중앙위원회의 프락에 이어고 당과 사상도 숭고도 발전속도도 같이하여 전진하는 세멘트 생산성으로 당의 대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순천화력발전소 직장장 오며는 자기의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새 기록, 새 기적을 창조하여 당 제7차대회를 위대한 승리로 빛내이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에게 보내주신 축하전문에 접한 각계의 반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사락없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최상의 영광, 최대의 믿음

건설건설공업사업 동적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난해 세멘트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를 수놓으신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에게 보내주신 축하 전문에 접한 각지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끝없는 격정에 넘쳐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빛내일 결의로 충만되어있다.

우리 공장에서는 주체적인 합계생산방법을 확립하고 새 계층개발과 질보장에서 성과가 있지만 아직 현대화실현에 해야 할 일이 많다. 하나 지강력제업주의를 높이 들고 현대화의 높은 목표를 수행해나간다는 자신

중의 믿음이 깰데 없었다.

전후 1만대의 장제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천리마의 속도를 창조한 강선의 로동계급이 발휘하였던 투쟁본래로 전례없는 세멘트생산성과를 안아온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로동계급의 결사투쟁의 투쟁정신으로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를 비롯하여 나라의 크고작은 세멘트생산기지들이 단가감, 단부하의 동음을 더 높이 올리도록 하였다.

오늘의 총진군에서 자신이 맡고있는 영예로운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현실이 정박하여 요구하는 문제를 두팔을 진여붙이고 일장에서 풀어나감으로써 건설전선공부에서 보다 큰 생산성파가 기록되게 하는데 적극

만리마속도로 폭풍쳐 내달리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에게 보내주신 축하 전문은 온 나라 로동계급에게 인자하신 최상사령관의 믿음과 대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김중대건기기관차연합기업소 작업반장 위인화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축하전문은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 로동계급에 영웅적이며 헌신적인 투쟁본래로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진군에서 폭풍쳐 내달림으로써 석탄생산에서 비약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순천화력발전소 직장장 오며는 자기의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상원로동계급의 투쟁본래로 질풍같이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에게 보내주신 축하전문의 의미는 하늘의 높이, 지구의 무게에 비길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이것은 상원만이 아닌 온 나라의 로동계급에게 인자하신 믿음이고 영예이다. 심장의 피가 끓게 하는 축하전문의 자자가 우리를 새겨부수도록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본분을 다해나갈것을 바라는 당의 뜻이 어려와 신들매를 더 바짝 조여왔다.

우리가 해야 할 공사는 조질 압연제동과 후연달생산기지

울해 물고기잡이목표점령을 위한 최후대인 우리앞에는 배수리와 탐색선의 현대화를 비롯하여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하지만 지강력제업주의를 높이 들고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온갖 내부예비를 합동동원하여 무조건 해내겠다. 실사 그 길에 난관이 있다 해도 웃으며 헤쳐내고 집단의 단합된 힘으로 만신의 배고통소리를 높이 울리겠다.

부합합계급공장 지배인 람영호는 수조만까지 보유한 핵강국이 된 우리에게도 미제와 추후세력들의 악랄한 괴롭고 위협, 암살책동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민간한 배병을 안고 모두가 불같이 살며 투쟁하고있다.

무엇한 목표물에 상원로동계급의 투쟁본래로 일해나갈 때 못해낼것이 없으며 이렇게 모든 부분과 단위들이 일떠서면 영광의 천리길, 만리길만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우리들은 과학기술의 기관차를 앞세우고 있는 예비와 가능성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중성성파로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다.

- 평양기관차대에서 -

본사기자 리진명 특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중성성파로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다. - 평양기관차대에서 - 본사기자 리진명 특음

당조직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대고조의 불길이 활활 라오르게 하자

독자지구관 광범합기업소에 상원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기풍에 화답하는 창조적 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이곳 당조직에서는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중요전투장소에 총집중시켜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치고있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 제 7차대회를 맞으며 온 나라가 양광면 정치적분위기로 세차게 끓어번지도록 정치사업, 혁신선전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다.》

일군들과 당원들, 로동자들의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당사사업들을 공격적으로 벌려 모두가 자랑찬 로적적성공을 안고 당 제 7차대회를 멋있게 맞이하게 하자!

이것이 당위원회가 내세운 목표였다. 특징적인것은 당일군이던 행정일군이던 막장을 혁신적

막장을 뒤흔든 사상공세의 포성

독자지구관 광범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정년연방 2개 재탄광과 통산탄광 3개 재탄소대장의 가정을 찾은 당책임일군과 지배인 요인 국동무는 집단의 사명을 받는 혁신자답게, 지난해 년간계획수행에서 앞장선 선배들에게 올해 첫 전투에서도 기발을 들고나가고 고부해주었다.

그루벌 기업소안의 60여명의 일군들과 굴진공, 재탄광들의 가정을 찾았다. 준비해가지고 온 물자도 안겨주고 가정형편도 알아보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한 대책도 세우는 일군들의 진정성은 굴진공들과 재탄광들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자 사무실에서는 들을수 없었던 혁신적인 안들이 쏟아져나왔다. 그것은 곧 생산실적으로 이어졌다.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매일 수백의 석탄을 더 생산하는 전열이

승리의 화살표따라 앞으로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자기 단위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입장에서 올해의 투쟁목표를 통이 크게 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며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도 심화시켜나가야 흥진대오가 활력에 넘쳐 전진하게 된다.

거창한 창조와 번혁으로 들끓는 각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정치사업을 인민군대식, 혁신적으로 확고히 전진시켜 기적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린 상원세멘트합기업소 당조직의 경험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의 정치사업능력, 작전지휘능력, 혁신적인 투쟁기풍에 뜻깊은 올해 전투승리의 결정적담보가 되었다.

당조직들은 사상상 혁명의 원동력으로 삼고 5대고조에 혁명을 집중하여 한다.

정세의 위안적인 고전적조작들과 당정책에 대한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캄바람정신을 베풀어 새긴 사상의 강자로써 역세게 준비시켜야 한다.

당조직들은 해당 단위의 정치적담보이다.

승리의 화살표따라 앞으로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자기 단위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입장에서 올해의 투쟁목표를 통이 크게 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며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도 심화시켜나가야 흥진대오가 활력에 넘쳐 전진하게 된다.

거창한 창조와 번혁으로 들끓는 각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정치사업을 인민군대식, 혁신적으로 확고히 전진시켜 기적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린 상원세멘트합기업소 당조직의 경험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의 정치사업능력, 작전지휘능력, 혁신적인 투쟁기풍에 뜻깊은 올해 전투승리의 결정적담보가 되었다.

당조직들은 사상상 혁명의 원동력으로 삼고 5대고조에 혁명을 집중하여 한다.

정세의 위안적인 고전적조작들과 당정책에 대한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캄바람정신을 베풀어 새긴 사상의 강자로써 역세게 준비시켜야 한다.

당조직들은 해당 단위의 정치적담보이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열의에 넘쳐있다. -독자지구관 광범합기업소 제 1탄광에서- 본사기자 김 광 혁 찍음

의 이신작적문제를 대중의 정신력발동에서 매우 중요한 열쇠로 보았다.

정초에 기업소안의 일군들과 지상부에서 일하는 종업원들로 통발나무를 팔기 위한 전투를 조직한것은 일군들이 앞채를 매고 대중의 심장에 더 큰 불을 지피기 위해서였다.

당위원회는 정초에 탄광들과 돌이 든 배낭을 맨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재벌지를 타고갔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통발나무를 팔며 재벌지를 누벼나갔다. 그 앞장에는 언제나 당일군들이 서있었다. 맹만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눈앞의 재벌지를 쉬임없이 오르내리면서 당일군들이 벌러나가는 참신한 정치사업은 전투장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대중의 정신력이 총발동된 가운데 하루동안 200여톤의 통발나무가 생산되어 석탄산의 물과가 거리게 되었다.

기업소는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혁명투쟁단위들 가운데서 석탄생산실적이 높은 단위로 자라날것을 지켰다. 만약 당위원회 일군들이 사무실에서 맹돌면서 회의나 열고 석탄산업을 높이고 호호하는 식으로 정치사업을 대치했다면 이런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을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찾게 된다.

사상상적전을 방사포의 일제사격과 같이 집중적으로, 연속적으로, 실효성있게 전개해 나갈 때 대중의 정신력이 최대로 폭발되어 그 어떤 조건에서도 상원의 로동계급적정전제 없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 것이다.

본사기자 손 영 희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자기 단위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입장에서 올해의 투쟁목표를 통이 크게 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며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도 심화시켜나가야 흥진대오가 활력에 넘쳐 전진하게 된다.

거창한 창조와 번혁으로 들끓는 각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정치사업을 인민군대식, 혁신적으로 확고히 전진시켜 기적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린 상원세멘트합기업소 당조직의 경험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의 정치사업능력, 작전지휘능력, 혁신적인 투쟁기풍에 뜻깊은 올해 전투승리의 결정적담보가 되었다.

당조직들은 사상상 혁명의 원동력으로 삼고 5대고조에 혁명을 집중하여 한다.

정세의 위안적인 고전적조작들과 당정책에 대한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캄바람정신을 베풀어 새긴 사상의 강자로써 역세게 준비시켜야 한다.

당조직들은 해당 단위의 정치적담보이다.

잡도리가 다른 큰 결음

새벽문

이른 새벽이다. 아직은 어둡게 벽안도 집문을 열고 밖에 나서 자바람도 지쳐부터 찾는 일군이 있다. 배천군 금산리당비서 조동현동무이다.

그는 마을을 조용히 벗어나 나뭇길기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잠간사이엔 한무지의

돌 파구는 우리의 몫

성천강전기공장 초급당위원회 일군들

동남방으로 떠나려고 하자 지배인 김승기동무는 그의 앞길을 막아나섰다. 불현한 몸으로 어떻게 그 민길에 나서겠는가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이다. 지난해 평도업적단위에게 공장의 변모를 일신시키기 위하여 헌신하다가 현장을 쓰러졌던 그것기 때문이다. 막아나서는 일군들의 권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초급당일군이 차에 몸을 실게 된다는

수송은 넘려 말라

성간역에서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새 로동자나부시기를 들이오라 하겠다.》

성간역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경에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심장에 새기고 새해 첫날부터 통발나무와 통나무수송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역의 일군들은 화물장나무러들에 많은 통발나무, 통나무를 들이오는데 맞게 수송조작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역일군들은 화물작업단 화물원들이 많은 일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도록 이끌어주어 화물수송확대수행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화물원들은 화물장에 나가 짐 일자들에게 화차 도착시간을 정확히 알려주어 통발나무, 통나무를 실을수 있는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고있다.

기적 소 리

이아래하는 나에게 초급당비서가 귀뜸해주었다.

《하나의 연구과제를 놓고도 저렇게 마음을 합치고있지요.》

어려 연구실들을 돌아볼수록 초급당일군이 한 말의 의미가 더욱더 부각되었다. 국가적으로 의의가 큰 과학연구과제를 더 많이

높은 목표, 완강한 실천

합경남도립업관리국에서

보내주신 소식에 접한 합경남도립업관리국의 일군들이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혁신적인 당 제 7차대회전까지 풀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화산식지사업에 힘을 넣어 산란마다에서 증산투쟁의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게 하고있다.

오늘의 총공격전에서는 자신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각한 관리국의 일군들이 지난해 이룩한 성과와 경험, 현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산지통나무생산에 역량을 집중하고 운반수단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산관에 최몰아치는 비약의 열풍

덕천목재산사업소 유승작업소에서

산지통나무생산전투를 지휘하는 사업소지배인 김재수동무와 메가폰을 들고 새해전투에 떨쳐나선 종업원들을 위문장부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부문당비서 한영일동무의 모습이 보인다.

《도 한데 넘어간다.》

합경남도립업관리국에서

보내주신 소식에 접한 합경남도립업관리국의 일군들이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혁신적인 당 제 7차대회전까지 풀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화산식지사업에 힘을 넣어 산란마다에서 증산투쟁의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게 하고있다.

오늘의 총공격전에서는 자신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각한 관리국의 일군들이 지난해 이룩한 성과와 경험, 현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산지통나무생산에 역량을 집중하고 운반수단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덕천목재산사업소 유승작업소에서

산지통나무생산전투를 지휘하는 사업소지배인 김재수동무와 메가폰을 들고 새해전투에 떨쳐나선 종업원들을 위문장부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부문당비서 한영일동무의 모습이 보인다.

《도 한데 넘어간다.》

합경남도립업관리국에서

보내주신 소식에 접한 합경남도립업관리국의 일군들이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혁신적인 당 제 7차대회전까지 풀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화산식지사업에 힘을 넣어 산란마다에서 증산투쟁의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게 하고있다.

오늘의 총공격전에서는 자신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각한 관리국의 일군들이 지난해 이룩한 성과와 경험, 현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산지통나무생산에 역량을 집중하고 운반수단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합경남도립업관리국에서

보내주신 소식에 접한 합경남도립업관리국의 일군들이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혁신적인 당 제 7차대회전까지 풀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화산식지사업에 힘을 넣어 산란마다에서 증산투쟁의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게 하고있다.

오늘의 총공격전에서는 자신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각한 관리국의 일군들이 지난해 이룩한 성과와 경험, 현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산지통나무생산에 역량을 집중하고 운반수단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덕천목재산사업소 유승작업소에서

산지통나무생산전투를 지휘하는 사업소지배인 김재수동무와 메가폰을 들고 새해전투에 떨쳐나선 종업원들을 위문장부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부문당비서 한영일동무의 모습이 보인다.

《도 한데 넘어간다.》

합경남도립업관리국에서

보내주신 소식에 접한 합경남도립업관리국의 일군들이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혁신적인 당 제 7차대회전까지 풀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화산식지사업에 힘을 넣어 산란마다에서 증산투쟁의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게 하고있다.

오늘의 총공격전에서는 자신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각한 관리국의 일군들이 지난해 이룩한 성과와 경험, 현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산지통나무생산에 역량을 집중하고 운반수단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당 제 7차대회를 높은 생산성으로 빛내이도록 불려일으키고있다. -평천부제 공장에서- 본사기자 한 광 명 찍음

우리의 청춘이 앞장 서서

협동벌에 이어지는 애국의 바통

증산군 풍정협동농장 청년작업반원들

서해간척지대에 자리잡은 풍정협동농장, 위대한 수명님들의 발자취가 뜨겁게 이르는 영광의 대지에 혁신의 기상이 약동하고있다.

말년에는 갈대들만 무성하여 버림받던 땅이었습니다. <청년들은 당과 혁명이요, 조국의 부름에 언제나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하여 온갖 처참한 오늘이 력사적인 순간에서 청춘의 힘과 지혜, 열정을 다 바쳐 당의 청년전위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얼마나 많은 길을 걸으셨고 돌려주신 사랑과 은정은 그 얼마나 컸던가. 피와 땀을 강고히 쏟아서라도 알찬 열매만을 무르익히야 할 영광의 땅이었다. 청년들은 서로 어깨를 걸고 노래를 부르며 갈밭을 기어이 개간하여 옥토로 만들었다.

지난해 가을 어느날이었다. 구질구질 내리는 비가 며칠째 맞을뎀을 하지 않았다. 비물에 흠뻑 젖은 포진들, 트랙터가 들어갈수 없게 되자 청년작업반원들은 등짐으로 버판들을 저날랐다. 비발속으로 내달리며 한창 버판들을 나르던 그들은 리영금동무와 마주쳤다. 지난날 앓음소리를 내던 그에게 작업반장은 조진없는 휴식명령을 내리었다. 걱정어린 눈길로 바라보는 반원들을 일별하던 리영금동무는 저기 같은 움직임으로 말했다.

조국의 재부를 늘여가는 처녀들

신양군산림경영소 양묘직장 청년작업반원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조국을 떠맡는 의욕과 기쁨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대앞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힘겨워하는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조국을 떠맡는 의욕과 기쁨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대앞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조국을 떠맡는 의욕과 기쁨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대앞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조국을 떠맡는 의욕과 기쁨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대앞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도처에 꾸러진 야외빙상장

황해북도 예천군에서

황해북도 예천군이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하고 있다. <청소녀학생들이 겨울에 스케이트 많이 타도록 하려 합니다.>

겨울방학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 군들에서 청소년학생들의 겨울철체육활동을 필요로 하는 야외빙상장을 꾸러주자고 하였다. 모두가 호응해나섰다.

그러나 어떤 정공에서는 읍지구를 가로질러 물이 흐르는 곳에 보막이를 하고 물을 잡아 청소년학생들과 어린이들이 스케이트를 탈수 있게 하였다.



황해북도 예천군에서 꾸러진 야외빙상장

높은 방법론과 높은 실효

분수식료공장 일꾼들

모든 사업이다. 그러하듯이 사상교양사업도 단위의 실정에 맞게 높은 방법론을 찾아내고 진행해야 보다 높은 실효를 거둘수 있다.

청춘들이 실천 자리의 <혁명적인 노력은 투쟁의 대오에 높이 올라가는 진군가이며 시대의 행진곡이다.>

로들과 결부하여 이야기하였다. <당원들의 이야기는 작업반원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우리의 일터에 백두의 붉은기 휘날린다

백송혁명사적지 답사속영소 소장 장광덕동무와 종업원들

말을 남기고 베스에 올랐다. 베스는 떠나갈때만 장광덕동무는 한동안 울적한 표정을 보였다. <어찌지 마시우 무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국혁명사적일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을 펼쳐들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혁명투사들이 발휘한 백두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지휘부로부터 100개의 작업반을 3일동안에 만들게 대한 과업을 받고 손바닥이 움직이고 심정을 고동치는 한 날까지 과업을 실천해야 한다고 하여서 모진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내며 끝내 과업을 수행한 투사들, 작탄을 한적하게 치며는 동지들을 바라보며 위대한 수명님께서 가르치신대로 자력으로 일하며 배고픔을 참아내신 투사들이었다.

우리는 백두라지를 케러 산으로 오르겠다는 복심동무의 말도 놀라웠지만 그것을 금수태양궁전수목원에 보내고싶다는 그의 생각이 부모들을 더 놀라게 하였었다.

우리는 백두라지를 케러 산으로 오르겠다는 복심동무의 말도 놀라웠지만 그것을 금수태양궁전수목원에 보내고싶다는 그의 생각이 부모들을 더 놀라게 하였었다.

우리는 백두라지를 케러 산으로 오르겠다는 복심동무의 말도 놀라웠지만 그것을 금수태양궁전수목원에 보내고싶다는 그의 생각이 부모들을 더 놀라게 하였었다.

우리는 백두라지를 케러 산으로 오르겠다는 복심동무의 말도 놀라웠지만 그것을 금수태양궁전수목원에 보내고싶다는 그의 생각이 부모들을 더 놀라게 하였었다.

우리는 백두라지를 케러 산으로 오르겠다는 복심동무의 말도 놀라웠지만 그것을 금수태양궁전수목원에 보내고싶다는 그의 생각이 부모들을 더 놀라게 하였었다.

본사기자 현 경철

